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도연 소설가

추석이 지났다. 다행히 길은 그다지 막히지 않았고 날씨도 괜찮았다. 고향집은 여전했으나 부모님의 등은 조금 더 굽어져 있었다.

누렁이는 앞다리를 틀어 반겨주었고 살아 오른 흰 토끼들은 두 귀를 쫑긋 세운 채 빨간 눈으로 토끼장 밖의 웅성거림에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지난 봄 병아리였던 닭들은 어느새 종닭으로 자랐고 수탉은 자기가 거느린 암탉들을 건드릴까봐 부리부리한 눈으로 철망 앞에서 시위를 했다. 갓 낳은 파스한 달걀 하나를 손에 쥐어보고 싶었지만 수탉의 위세에 욕심을 접었다.

고향집에 오면 마치 순례를 하듯 하나 하나 돌아보는 습관이 든 게 언제부터인

보름달 아래서

지 모르겠다. 예년보다 일찍 추석이 찾아온 탓에 고추는 아직 반밖에 물들지 않았다. 수수열매를 찾아왔던 새들은 양파 땅이 썩어져 있는 걸 확인하자 치사하다(?)고 지저귀며 다른 밭으로 날아갔다.

품종개량을 한 것은 아닐 텐데 들깨 줄기는 사람 키보다 컸다. 깨를 베고 옮겨서 털려면 꽤나 품이 들어갈 것 같았다. 나는 말라가는 옥수수 수염을 쓰다듬고 담장을 따라 뻗어간 머루 줄기에 매달린 검은 머루 알을 지그시 눌러본 뒤 겨우 네 알밖에 열리지 않은 사과나무에 애뜻한 눈길을 주었다. 작년에는 한 집에 한 봉지씩 들고 돌아갔는데 올해는 한 알씩 가져가야 할 형편이었는데.

집 뒤편 개울가에서 자라는 돌베나무는 이미 열매를 모두 떨어트린 채 잎이 말라가고 있었다. 돌베는 다른 과일과 달리 익기도 전에 열매를 툭툭 떨어뜨리곤 했다. 어린 시절 돌베를 줄다가 돌려받던 단단한 돌베에 머리를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 고향에서는 돌베를 맛이 몹시 시어서 심배라고 불렀다. 잘 익은 돌베라 하더라도 한 입 깨물면 그 신맛에 목서리를 치

는 게 돌베의 맛이였다. 그래서인지 다른 산열매보다 인기가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와 돌베 술로 일약 주가가 치솟았다. 잘 담긴 돌베 술은 외국의 와인보다 그 맛이 깊고 그윽하기 때문이다.

폭설이 내리는 깊고 깊은 겨울밤, 구들장이 뜨끈뜨끈한 고향집 뒷방에 앉아 문밖의 눈을 내다보며 마시는 돌베 술의 맛을 어디에다 비교하겠는가.

뿔뿔이 떨어져 사는 식구들이 먼 길을 달려와 모두 모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성묘를 간다. 성묘 가는 길이 어렸을 때만큼 멀고 규모가 크며 왠지 낯이 낯이지만 그래도 옛 기억을 떠올리며 산길을 달린다.

먹을 게 부족했던 그 시절, 한 시간은 걸어야 되는 성묘길이었지만 사촌들은 누구하나 빠지지 않고 코를 흘리며 악작 같이 걸었다. 성묘를 가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밭에 쏘이고 넘어지고 개울을 건너다 물에 빠지면 서로 조만간 입으로 들어올 음식을 상상하며 힘들다는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그 세월을 건너 지금 여기에 도착해 자동차를 타고 십 분 만에 산

소에 도착한다. 그러나 사촌들은 없다. 어른이 된 사촌들은 묘소를 바꿔 자기의 부모님 묘소에 성묘를 가기 때문이다. 어른이 된 딸들은 시댁의 산소에 성묘를 가기 때문이다.

당연히 예전처럼 서로 음식을 먹으려고 산소를 뱅뱅 돌며 법석을 떨지도 않는다. 그 그림자만, 그 기억만 산소 주변에 맴돌 뿐이다.

추석의 밤을 밝히는 보름달을 쳐다보았다. 보름달이 뒤편에도 고향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을까. 사업에 실패했을까. 형제들과 대판 싸운 게 아직 풀리지 않았을까. 명절에 때맞춰 부부싸움을 했을까. 고향에 가도 아무도 없으니 외국으로 여행간 것일까. 또 취업에 실패한 것일까. 결혼은 언제할 거냐는 친척들의 위로가 지겨워진 것일까. 이유도 가지가지일 테고 변명도 가지가지일 것이다.

세상이 그렇고 그렇지 않은가.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저 깊은 바다 속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이 하루빨리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이번 추석의 소원은 그것 뿐이었다.

기고

흑백논리와 탕평의 꿈



이당재 시인·평론가

창밖의 세상을 보면 ‘콩이아 팔이야’가 너무 심한 것 같다. 국회 여야정치란, 남·북한 간 이념과 동·서지역주의가 그렇고 각 사회단체, 세대 간의 갈등·분열 등 어느 것 하나 화음을 이룬 오케스트라나 색색의 꽃이 조화를 이룬 꽃밭은 진정 찾아볼 수 없는가싶다. 요즘 정치를 보면 조선시대 당파싸움과 꼭 닮았다. 여당은 친박이니 친이니 하고, 야당은 친노 비노 주류 비주류로 갈라져 무슨 색깔, 무슨 파일이다 하며 공팔칠팔하니 화음이냐 조화와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진다.

우리는 조선 5백 년 동안 유럽들이 조선사회를 이끌었는데 흑백논리로 일관했다. 흑백논리가 무엇인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것이다. 옳은 것도 하나이고 틀린 것도 하나밖에 없는데 흑백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네가 없어져야 내가 살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없어져야 하니까 내내 죽기 살기 파벌싸움 뿐이다. 5백여 년 동안 유교의 교조주의와 형식논리가 합한 흑백논리로 살아왔고 지금도 국회 여야는 물론 지역·세대·노사·언론도 마찬가지다.

물리학자에게 흑백이 뭐냐고 물었다. 네 가지 원색이 밝은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섞여지고 밝아지는 것, 그것이 백색이고, 자꾸 어두워져서 색을 잃어버려 마지막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흑색이라고 한다. 원래 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백이다, 흑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백에서부터 시작해서 흑으로 가는 중간만이 존재한다. 중간은 넓은 의미의 회색이다. 밝은 회색이 백색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어두운 회색이 흑색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모든 것은 회색이다. 내가 알만 알아도 부족한 점이 있고 저쪽이 아무리 나빠도 좋은 점이 있기 마련이다. 흑백이라는 것은 없다. 우리는 다 중간에 산다. 흑백논리를 하게 되면 없는 백색하고 없는 흑색하고 싸우는 것이다.

영국계 정신이라 불리는 경험주의를 택한 앵글로색슨 사회나 합리주의를 택한 대륙계 프랑스 독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흑백논리가 없다. 경험주의는 경험

해보고 더 좋은 것을 찾아서 계속 개선해나가는 사회요, 합리주의는 원칙을 찾으면 그 원칙을 따라가지만 하면 되는 사회다. 우리는 해방 후 일본 것 다 없애버리고 중앙청 건물도 없애버렸다. 영국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도사람들은 중앙청 이런 건물 가졌다고 큰일 나느냐. 좋은 집 쓰면 되는 것이지 꼭 없애야 되는 것이냐. 좋은 것 받아들이고 우리 좋은 것 살리면 되는 것이다. 앵글로색슨 사회가 식민지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가 다 내쫓지만 원수지는 법이 없고 프랑스 독일식 합리주의는 원칙만 맞으면 통일이 된다. 동서독이 통일을 보라. 원칙이 맞으면 함께 따라가라. 그래서 통일이 되는데 우리는 흑백논리 때문에 통일이 더 어렵지 않을까 싶다.

조선 5백 년 동안 탕평책을 가장 많이 쓴 임금은 정조다. 당파간의 정치적 대립과 분쟁을 넘어서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융합된 상태를 이룬다. 정조는 조선의 폐해가 봉당과 당파싸움에서 발원함을 직시했다.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도 봉당정치 폐해로 보고 탕평을 원했다. 그래야 자기도 살고 백성도 살며 나라도 산다고 확신했다. 정조의 탕평의 꿈이 사라진지 200년이 지난 지금 탕평의 꿈은 모든 국민의 여망이다. 진정한 탕평

은 단순한 자리 갈라먹기나 지역안배만 아니냐. 진정한 탕평은 “내 것밖에 모여라”가 아니라 “내가 모든 이들의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겸허한 의지의 리더십이다. 그게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고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제 불량정치를 추방해야 한다 불량정치는 탕평의 부재다. 탕평의 꿈이 이뤄지면 우선 대통령부터 정치인, 전 국민에 이르기 까지 탕평이 역사적 사명이요 선택이여야 함을 명심해야하겠다.

지난 6·4 지방선거와 7·30 보궐선거에 나타난 세상 민심 선택에서 지역주의 변화를 보며 탕평의 필요를 느낀을 갖게 한다. 여도(與都)인 대구에서 기호 2번인 야당 후보가 40.3% 득표했고 광주에서도 여당 후보가 기초의원 당선을 시작으로 야당의 이성인 순천 곡성에서 이어 흥을 하듯 기호 1번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킨 이변을 낳았다. 이어서 지금까지의 동서 분열의 지역 구도를 변화시키는 추동을 가져오기를 기대하게 된다. 이를 어느 언론은 ‘까지발 민심’이라 했다. 까지발은 공존의 메시지다. 이는 지역주의 타파의 시작이요 국민이 선택한 탕평의 큰 흐름이 되기를 바란다. 여기에 대통령이 탕평의 큰 그림을 그려주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의료칼럼

월경전증후군과 자궁질환



김민우 청담산부인과외과의원 원장

여성들 상당수가 월경 전에 우울감이 나 유방통, 복통 등으로 고생한다. 문제는 이들 통증이 단순 ‘월경전증후군’이 아닐 수 있다는 데 있다.

직장인 박모(33)씨는 월경 전 일주일 가량은 극심한 우울감과 짜증, 아랫배 통증 등 월경전증후군이 심했다. 이 증상은 수년간 지속됐으며, 월경 전에 발생하는 당연한 증상이라 여겼다. 6개월 전부터는 월경전증후군 증상이 월경이 끝난 후에도 며칠간 이어져 병원을 찾았다. 전문의 진단 결과 자궁에 근종이 다발성으로 나

타났다. 월경전증후군은 단순히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불편이 아니라 삶의 질을 심하게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도록 치료와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한 달에 한번 주기적으로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월경은 여성의 신체 및 정서 발달과 생식기능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하지만 월경 시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는 적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70~80%는 월경전증후군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은 경미해서 특별히 치료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 중 20~40%의 여성은 증상이 심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월경전증후군의 주요 증상은 두통, 사지부종, 유방통, 복부팽만감, 복통, 요통, 관절통, 근육통, 체중 증가 등 신체 증상과 불안, 우울감, 짜증, 집중력 저하 등이 있다. 증상이 복합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월경전증후군은 약물치료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생활습관을 함께 병행해서 치료해야 한다. 약물치료로는 정신작용제, 경구피임제, 성선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 등의 요법으로 치료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술, 담배, 카페인, 당도나 염분이 높은 음식을 즐겨 섭취하는 사람에게 더 맞으므로 생활습관으로는 이와 같은 기호식품이나 음식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월경 후에도 이어지는 복통은 자궁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월경전증후군은 월경이 시작되면서 대부분 그 증상이 사라지는데, 월경이 시작된 후에도 신체적인 증상이 계속 이어진다면 다른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 월경전증후군의 증상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인 ‘복통’은 월경이 시작하면 월경통으로 이어져 자궁질환이 발생했어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

청담산부인과외과 김민우 원장은 “월경통의 원인은 다양하며 단독 또는 복합

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심한 월경통을 자연스런 생리현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 골반염 등 자궁 내에 질환이 있으면 월경전증후군이 지속되거나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자궁질환인 자궁근종은 자궁 내에 생기는 양성 종양으로 월경통이 심해지는 증상을 나타낸다. 자궁근종은 경과를 지켜보다가 근종의 크기가 3cm 이상인 경우나 개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간다. 자궁선근증은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의 근육 안으로 자라 들어가 자궁이 비대해지는 질환으로 자궁이 정상 크기보다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자궁선근증의 절반 이상에서는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염, 자궁내막암 등이 동반되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기 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

社說

“국회 해산하라”는 민심 두렵지도 않나

정치권에 대한 추석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일부에선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라며 격앙하고 있다. 서로 네 탓만 하고 민생은 외면하는 여야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 할 수 있다.

성난 민심은 정치권이 자초했다. 추석 전부터 정략의 늪에 빠져있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으로 국민은 질식상태다. 여야는 민생 법안마저 정쟁으로 일관해 국회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 됐다.

비리 의혹을 받아온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회의원들의 속마음이 예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사실상 방탄국회를 가동해 일만 열면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국회의원들의 약속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처럼 쌓이는 불신에도 여야는 상대방의 책임전가에 급급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정국회회는 지난 1일 개회 이후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세월호 특별법을 타결하지 못하고 대치상태에 맴돌고 있다. 식물국회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국정감사와 민생법안, 새해 예산심의 등 기본적인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에 연쇄적으로 차질이 빚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꼭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 먼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한 발 물러서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협상을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다. 더 이상 정치적 논란만 고집해 국민 고통이 가중되면 여당으로서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새정치연합은 거리정치와 집교 국회에서 모든 것을 논의해야 한다. 당내에서도 강경대응에 대한 자성론이 일고 있는 만큼 지도부는 이를 잘 헤아려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옳다. 국회 해산론까지 비등해진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정치권은 최악의 사태를 맞을지도 모른다.

호남 소외 해소, 박 대통령이 나설 차례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호남미래포럼 한갑수 이사장 등 4일 출신 주요 인사 90여 명은 지난 4호 호남발전간담회를 열고 호남 인사에 대한 차별 해소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변명과 호남의 도약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호남 출신에 대한 정부와 대기업, 사회 각 분야의 인사 차별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호남 대표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인사 차별 해소를 대통령에게 촉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호남 소외를 인내하는 데 한계에 달했다는 ‘절규’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호남 인사 홀대는 심화되고 있다.

각 부처의 장·차관급은 물론 청와대 고위직과 소위 4대 관력기관장에 호남 인사들이 철저히 배제된데다 고위 공

무원단의 비율도 극히 낮다. 이대로 가다간 “호남 인사들은 씨가 마를 것”이라는 극단적 이야기도 나온다. 주요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 예산 차별도 심각하다. 인구마저 총정권에 밀리고, 모든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으니 호남의 미래가 암담할 따름이다.

그러나 호남 없는 정부가 있을 수 없듯 더 이상 호남의 낙후를 방치해선 안 된다. 현 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의 실현을 위해서 호남인재를 중용하고, 예산을 균형있게 분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호남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약속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제 퇴행적인 지역 차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지난 7·30 재보궐선거에서 대통령의 복심(腹心)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을 지역민들이 당선시킨 것도 호남에서 먼저 철폐하고자 했던 의지에 있었다. 호남 소외 해소, 박 대통령이 나설 차례다.

無等鼓

‘관개’(灌溉: irrigation)는 일반인에겐 매우 생소한 단어다. 농경지에 물을 인공적으로 공급하는 일을 말한다. 작물이 자라는 데는 물이 필요하지만 물은 자연의 강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관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물 밑 ‘관’(灌) 자에 물 밑 ‘개’(溉) 자를 쓴다.

관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가 ‘배수’(排水: drainage)다. 밑에 깔 ‘배’(排) 자를 쓰니 물을 빼내는 일이 곧 배수다. 작물은 물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아도 돌리는 배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생명의 물

요성과 대책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융수 분야의 UN 회의’라 할 수 있는 국제관계배수위원회(ICID) 총회가 다음 주 이 지역에서 열린다. (14일~20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이번 총회는 세계 60여 개 나라에서 1200여 명의 수자원 및 농업 전문가가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다.

광주총회는 우리나라가 물 관리 기술과 물 관련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수자원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알리 나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총회 의 슬로건은 ‘모자라느냐가 생명의 물’.

수자원의 나눔을 통한 인류의 공생과 평화를 목적으로 한다. 아전인수(我田引水)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박재순 2014 ICID 광주총회 공동조직위원장(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총회(프로그래밍 중 하나인) ‘개발도상국 농업개발 지원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은 우리 농업기술 수출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이와조목 이번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관개’를 통한 세계 여러 나라와 ‘관개’ 맺기에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홍재 논설교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